

5월 단체·시민단체 “진상규명 의지 의문”

“한국당 추천인사 3인 5·18왜곡 우려” 강력 성토 프로필 찢는 퍼포먼스 벌여...자진철회 거듭 촉구

5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인사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진상규명 의지와 역사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며 추천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진상규명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면 한국당은 진상규명조사

위원 3인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추천을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10개월, 시행령이 공포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오던 한국당이 국민 여론과 오월 유가족들의 거친 항의에 떠밀려 3인의 인사를 추천했다”며 “추천한 인사의 행적을 보면 진상규명 의지와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위원 인사 3인의 자질에 대해 논했다.

이들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 기사를 통해 당시 계엄군 성폭행 등을 부인하고, 인터넷 방송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을 ‘소수의 선동’으로 규정하는 등 진실을 왜곡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또 “차기환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경악! 북한군 광주 5·18납과 사실로 밝혀

져’라는 제목의 극우 언론의 글을 게시했으며, 군인 출신인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5·18 관련 활동이 전무해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0주년을 앞둔 시점에 5·18 진상규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진상규명위원회는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관과 진실규명에 특별한 사명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추천한 3인이나 지만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행적과 면면을 보면 지금껏 밝혀진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왜곡과 유언비어로 폄하할 소지가 다분하고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박힌 대못을 더 깊이 박을 이들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추천 수용 거부사를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추천인사의 약력과 사진이 담긴 한국당의 보도자료 확대 인쇄본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는 5월 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3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서울 국회 앞에서 농성을 펼친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도 참석해 5·18진상조사위 추천 인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환준기자



열어붙은 하수관을 뚫어라 16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하수팀 직원들이 북구 두암동의 도로변 배수관에서 한파로 인해 열어붙은 하수관을 의 쌓인 토사 등의 퇴적물을 준설차를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전남 농·수협 집단 성매매 의혹 수사 착수

경찰 “농협 측의 명예훼손 고소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경찰이 집단 해외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합평농협과 고흥군수협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전남 여성 인권단체들로부터 이들 조합 임직원의 해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2017년 1월 베트남 다낭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합평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 1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성

매매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합평농협 측은 “노래방에 갔을 뿐 도우미를 부르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흡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합평농협 조합장은 최초 제보자를 명예훼손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다른 임직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고흥군수협 임원과 대의원 등

41명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전남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여성단체는 고흥군수협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필리핀 마닐라로 연수를 갔다가 일부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불법 성매매와 명예훼손 주장이 맞서고 있어 양쪽 모두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통근버스 분리대 충돌...12명 경상

16일 오전 6시55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서 목포에서 영암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모 회사 통근버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근로자 38명 중 12명이 목과 허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통근버스 운전자 A(57)씨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화물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암=이봉영기자

취업사기 기아차 노조간부 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구직자 절박함 이용”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19억원을 가로챈 노동조합 간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직 기아차 노조 대의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노조 간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들을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끼치게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29명에게 각각 3천만~1억5천만원씩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7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해 7월 여수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친구인 황씨에게 원문을 구해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혐의 경찰관 김모 경정(47)도 기소됐다.

/오승지기자

19년전 강진 여자어린이 연쇄 실종 재수사

경찰, 유력 용의자 작성 200쪽 분량 노트 확보 분석

경찰이 19년 전 강진에서 발생한 어린이 2명의 실종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작성한 200쪽 분량의 노트를 확보해 사건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실종·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과 2001년 6월 발생한 강진 초등생 실종사건의 용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재조사하고 있다.

당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

가 하룻길에 실종돼 연쇄 실종사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2000년대 중반 20대였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실종 및 강력사건에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당시 A씨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남긴 점과 두 어린이 실종 시기 강진에 거주했던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실종된 어린이와 비슷한 아이를 A씨가 자전거에 태우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주변 진술도 있었으나 구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종 어린이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02년 다른 범죄에 연루돼 살인 혐의로 15년 형을 확정받았으며 출소 후 장애인 간음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초등학생 어린이 실종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암호 등을 사용해 작성한 200쪽 분량의 노트를 확보하고 내용을 분석하며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사건을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형사부서로 이관해 범행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장애인 요양시설 쓰레기장서 불

16일 오전 10시32분께 광주 광산구 덕림동 한 장애인 요양시설 쓰레기배출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에 의해 26분여 만에 진화됐다. 쓰레기배출장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로 불이 옮겨붙거나 연기가 스며들지는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며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광산=주형탁기자

“창문도 아니고 차문을 왜(?)”

“창문도 아니고 차문을 왜(?)”

“...만취해 택시에 탑승한 30대 여성이 주행 중인 차 문을 열고 고 하자 이를 막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행.

“...1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2·여)씨는 이날 자정께 서구 쌍촌동의 한 술집 앞에서 택시에 탑승해 집

으로 가는 중 주행 중인 차 문을 갑자기 열려고 했으며 B(50)씨가 이를 제지하자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다시 불러 왜 문을 열려고 했는지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창문도 아니고 차문을 열어서 어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문현원기자

임야삽니다

당일신속처리
010-6834-7400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

경매투자

오 천 경 매
010-3605-5000

유럽풍 최고급 상가 주택 [급매]

금매 전문

도심속 전원별장입니다 1층에서는 병의원, 변호사사무실, 화랑등 전문직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은 직접거주하시면 황제부럽지않은 최상의 주거공간이 될것입니다.

- ▶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변
- ▶ 대지230㎡ 건평137㎡
- 연건평335㎡ 2012.4월산
- 1층 커피호프

- 2층 주택
- 3층 아파트형 유럽풍 고급주택
- 옥탑 휴게방1, 팔각정, 특수조경

[매가]매매가격은 상호협의

[특징]

- 1) 건물주가 서울의 유명한 의상디자이너 출신
- 2) 주거공간은 막힘없는 남향으로서 무등산의 사시사철을 조망할수있음
- 3) 옷장, 장식장, 책장, TV, 에어컨, 벽난로등 모든 시설집기는 불박이로 되어있음 (영구히 살기 위해 큰돈을 투자하여 지은 건물)
- 4) 벽체 단열, 유리 4중창 방열, 방한, 방음처리
- 5) 황토방 한지마감 특수처리, 편백 천정
- 6) 거실벽 스톤 처리, 유리창 달을시 온도 변화 거의 없음
- 7) 옥상 팔각정시설, 휴게방, 특수 조경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